

동네북된 '무상버스'

[방송] MBC, 기사작성의 ABC는 알고 있나

MBC는 <“무상버스 도입” 공약 현실성 비판>(3/14, 김세로 기자)에서 김상곤 전 교육감의 경기도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 모습을 배경으로 “김 전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엔 ‘무상 버스’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무상버스 공약’에 대한 설명은 없이 “아무리 바람직하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다음 도지사의 임기 내에는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한 일”(김진표), “서울 등 다른 지역주민들까지 경기도 버스를 공짜로 타게 하자는 것이나, 공영제를 해도 요금은 내야한다”(원혜영), “무조건 공짜부터 외치는 잘못된 인기 영합주의는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을 속이는 새빨간 거짓말”(심재철)이라는 반대 입장만을 나열했다. 이 보도는 무상버스 공약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은 전혀 없이 반대하는 입장만 3명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선거보도의 기본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 특히 기자 스스로 무상버스 도입의 필요성과 현실적 어려움 등에 대해 취재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점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원색적인 정치 공방성 발언을 담은 것은 누가 봐도 부실하고 악의적인 보도라고 하겠다. 이 보도는 유권자들에게 무상버스 공약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한 채, 김상곤 전 교육감에 대한 노골적 비판을 담은 전형적인 편파보도이다.



△ 3월 14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종편] “공짜버스는 허무개그 소재 될 것?”

12일 <김광일의 신통방통>에 출연한 정군기 씨는 “저 사람이 혁신, 평등 교육을 내세우는 바람에 학력이 저하된 학교에서 제가 애들 대학 보내느라 고생했다”고 주장했다. 함께 출연한 배진영 씨는 김 후보가 출판기념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서울시장에 나오지 않고 경기도지사 나오게 이해가 안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출판기념회를 코엑스에서 한 것과 경기도지사 출마를 무리하게 연결시켜 비난을 위한 억지주장을 짜 맞춘 것이다. 13일에는 사회자인 김광일 씨가 김 후보의 무상버스 공약을 언급하며 “경기도에 사는 주민들께서는 이런 공약이 언뜻 달콤하게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 “공짜버스는 허무개그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하했고, 패널리인 허성호 씨는 “(무상급식에 이어)경기도 주민을 또 한번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V조선의 또 다른 시사토크 프로그램인 <돌아온 저격수>의 출연진들은 “무상급식 때문에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을 내놓으며 김 후보의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무상버스 공약에 대해 ‘무상급식에 이은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규정한 뒤 ‘허경영의 황당공약’을 이어붙이며 허 씨와 김 후보를 동일시하는 악의적인 구성을 내놓기도 했다.



△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 화면 캡처

[신문] ‘무상’이라는 말에 벌벌 떠는 보수신문

조선일보는 13일자 ‘김상곤, 이번엔 공짜버스로 유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무상 교통은 꿈같은 이야기”라고 전했다. 제목부터 ‘공짜’, ‘유혹’이라는 단어를 써서 김 후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끔 배치했다. 동아일보는 14일자 <김상곤의 ‘무상버스’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는 사설에서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난했고, 중앙일보도 15일 사설을 통해 “정치 초년생인 김 전 교육감이 무상급식 이슈로 성공했던 과거의 경험만 믿고 무상교통이라는 또 다른 프레임 놀이를 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신문, “국민의 혈세로 후원금 안된다”
1인당 후원금, 중복 딱지의 연장선

조선일보가 2013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현황을 보도하면서 통합진보당을 겨냥해 ‘국민의 혈세에서 후원금을 빼먹는 상황’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3월 14일 <진보정당들, 새누리 민주보다 1인당 후원금 더 모았다>를 시작으로 15일 <여야 정통정당이 중복 좌파정당에 밀려서야>라는 기사를 연이어 내보냈다. 기사 내용은 정당별 의원 1인당 후원금을 계산해 보니 정의당, 통진당, 민주당 새누리당 순이라는 기사에 이어 중복 좌파 세력이 국민의 혈세에서 후원금을 빼먹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기자수첩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뉘앙스는 동아일보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는 14일 <정의>통진>민주>새누리>라는 기사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등으로 중복 논란에 휩싸인 통진당은 8억6924만 원을 모금해 전년보다 후원금이 2배 이상으로 뛰어올랐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후원금 총액 382억원 중 90% 이상은 새누리당(195억4972만원)과 민주당(162억6966만원)이었다. 굳이 분석을 하고 싶으면 1인당 후원금 모금액 순위와 함께 정당별 총액 순위도 병기해야 옳을 것이다. 또 1인당 평균 모금액을 비교하려면 소수 정당의 특징도 분석해 줘야 했다. 즉 소수 정당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

從北·좌파정당에 밀려서야

금원섭 정치부

할 수 있다. 새누리·민주당 1인당 후원금 12.8%로 새누리당보다는 조금 높았지만 정의당(59.9%)이나 통합진보당(32.1%)보다는 크게 낮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로부터 소액 후원금을 모으는 노력도 거의 없었던 편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후원금은 모금 과정에서 지지자를 최대한 확장해 나가는 의미도 크다”며 “편하게 받

을 초과하였다. 연말 전액 환급 후원금은 “후 9500만원 기재 안 된

통진당·정의당에 못미쳐 “몸집만 크고 체력은 부실” 확인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로부터 후원금 받으려는 노력도 부족

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원은 자기

의 기반을 더 굳혔던 것이다. 합리적인 진보 정당에 후원금이 가는 건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중복·좌파 정당이라면 예기가 전혀 다르다.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로 감옥에 간 동안 후원금을 전보다 2배 이상으로 거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모두 집권 경험을 가졌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 3월 15일자 조선일보 기자수첩

진 정치인들이 포진되어 있어 평균 모금액은 높아지게 된다. 조선일보는 이어 15일 기자수첩에서도 “중복 좌파세력이 국민의 혈세에서 후원금을 빼먹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고 해 놓고 있다. 어떤 정치학자나 의원 또는 국민의 목소리 없이, 신문 스스로중복 좌파 정당에게 국민의 혈세로 후원금을 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아울러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은 후원금 기사를 전하면서 통합진보당 앞에 ‘중복’ 또는 ‘정당 해산 심판’이란 딱지를 붙였다. 이는 호불호에 의해 자의적인 내용 전달이다.

표로 읽는 선거보도

[종합] 시사프로그램 패널 분석 결과, TV조선은 친정부·여당 패널 일색

		친정부·여당	친야당	기타	소계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	24(100%)	0	0	24
	<돌아온 저격수다>	16(100%)	0	0	16
채널A	<직언직설>	12(66.7%)	4(19%)	5(23.8%)	21
	<쾌도난마>	14(50%)	12(42.9%)	2(7.1%)	28
합계		66(74.1%)	16(18%)	7(7.9%)	89

△ TV조선, 채널A의 대표 시사프로그램 출연 패널 분석(3/10~3/14)

[방송] 방송4사 선거보도량 분석 결과, KBS 적어도 너무 적어

	KBS	MBC	SBS	YTN
선거보도량 리포트(단신포함)	4(2) 2.1%	8(1) 4.6%	10(1) 6.3%	15(7) 7.1%
총 보도 수	189	175	158	214

△ 방송4사 메인뉴스 선거보도량 (3/8~3/14)

*금주의 朴비어천가

중앙 <확 바뀐 박대통령의 경례 “군인 못잖다”>

그동안 몇몇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옷 스타일, 옷 색깔을 놓고 칭찬하는게 유행인 때가 있었다. 이런 ‘옷통령 찬양’이 잠잠해 지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중앙일보가 급기야 ‘경례 모습’까지 찬양 대열에 올려놓았다. 당일 인터넷에 탐 기사로 걸어놓은 걸 보니 중앙일보 스스로도 뿌듯해하는 눈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자못 궁금해지기까지 하다. 중앙일보는 15일자 종합면에서 <확 바뀐 박 대통령 경례 “군인 못잖다”>란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경례 모습이 화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런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올린 것이 더 화제 아니었을까. 중앙일보의 기사는 대통령 취임시 뭔가 어색했던 경례 동작이 점점 고쳐지더니 최근에는 완벽해졌다는 게 핵심 요지였



△<확 바뀐 박대통령의 경례 “군인 못잖다”>(중앙일보 3.15 4면)

다. 청와대사진기자단으로부터 받은 4장의 사진까지 순차적으로 넣었다. 지난 13일 경찰대학 졸업식에서의 경례 모습에 대해서는 아예 “이날 박 대통령은 완벽한 경례를 했다. 한 동작으로 손바닥은 보일 듯 말 듯, 약간 구부린 손가락 끝, 짝 편 손목,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었다”라고 묘사했다. 한 네티즌은 기사에 ‘이제 북한사람들 욕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까지 켰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은 참모진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례 연습을 열심히해서 지금의 경례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제 말마따나 경례 모습도 완벽해져 더 연습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그 시간을 지난 대선때 무슨 공약을 내걸었는지부터 찬찬히 찾아서 일독했으면 좋겠다.

‘선거개입 의혹’ 청와대 비서관 사퇴 방송사들 <단신 처리> 과연 옳은가!

지난 8일,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선거개입 논란으로 물의를 빚어 사표를 제출했다. 인수위 행정실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해 3월 청와대 민원비서관에 기용된 임 비서관은 지난달 22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원 및 수원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신청자 15명과 함께 등산하고 점심을 먹은 뒤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15명에 대한 면접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임 비서관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현행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해당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재오 의원 등 새누리당 인사들까지도 임 비서관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논란이 되자 7일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쪽에서 임 비서관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고 8일 임 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방송 4사는 3월 8일 메인뉴스에서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이 편일률적으로 이 내용을 단신처리했다. 이날 KBS는 <‘지방선거 관련 의혹’ 청와대 비서관 사표>, MBC는 <‘면접 논란’ 임종훈 비서관 사표>, SBS는 <‘지방선거 관련 논란’ 청와대 비서관 사표>, YTN은 <청와대 임종훈 민원비서관 사표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일단 제목만 보면 일단 MBC와 YTN은 선거 관련 논란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게 뽑았다.

반면 보도내용에서는 KBS와 SBS가 엉망이었다. MBC와 YTN은 그나마 “수원영통 지역의원의 도의원과 시의원 출마 신청자 15



△KBS<간추린 단신 ‘지방선거 관련 의혹’ 청와대 비서관 사표 자료화면>(3/8)

명을 면접”했다는 내용을 언급했지만, KBS와 SBS에서는 의혹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방송4사의 어떤 보도로도 청와대 비서관이 지방선거에 관여했다는 이번 사건의 의미와 파장은 전달되지 않았다. 후보자에게 한끼 식사를 제공받았다가 30배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서민은 비중있게 보도하는 방송사들이 정권 차원의 선거 관련 논란에 대해서 이처럼 짧게 보도하는 것은 문제이다.

특히 전날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보도하지 않았으면서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부리나케 방송4사가 모두 보도한 것도 정부의 선거개입 논란이라는 악재를 조기사습하려는 보도태도로 비춰진다.

#‘안철수 때리기’ 언제까지?

[종편] TV조선, 억지 주장과 궤변

11일 TV조선의 <돌아온 저격수>에서 진성호 씨는 “폭탄주라는 건 원래 만든 사람이 마셔야 한다”는 ‘주법’과 ‘예법’을 논했다. 그러더니 “정치를 하려면 이렇게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귀족적으로 정치한다”면서 안 의원이 폭탄주를 다 마시지 않은 것을 꼬투리 잡아 “새 정치도 좋지만요 대다수의 서민들,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술을 마시고 있는지. 이 고통을 이해해야만이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궤변을 쏟아냈다.

이에 앞서 10일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안철수 죽이기’는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에 출연한 민영삼 씨는 “저번에 대통령 후보도 문재인 후보한테 아무 설명도 없이 안한다고 했다”면서 안 의원을 가르켜 “단념의 결단은 아주 최고의 의원이 아닌가”라며 비아냥거렸다.



△ 3월 11일 TV조선 <돌아온 저격수>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에 출연한 황장수 씨는 “안철수 의원이 항상 기자회견을 폐장 시간 이후, 휴일에 한다”면서 “안철수 마후에는 박경철이라는 주식투자전문가가 있다”, “이 사람이 안랩연구소의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맥락으로 <돌아온 저격수>의 신혜식 씨도 “안랩의 주가가 널뛰기를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개미투자자들”이라며 주가조작이라도 한 듯 몰아갔다.

#‘안철수 때리기’ 언제까지?

[방송] MBC, 해프닝까지 상세히

3월 8일에는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첫 공식행사로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SBS와 YTN는 이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보도하면서 통합신당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의 불협화음에 대해 다뤘다. (KBS는 관련 내용이 없었음.) 그런데 MBC는 유독 타 방송과는 다르게 새정치연합 윤여준 의장의 발언만을 한 꼭지로 부각시켜서 보도했다.

제목도 <“안, 얼마나 거짓말을...”>(3/8, 안충희 기자)으로 뽑은 이 보도에서 윤여준 의장의 정치 토크쇼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어 기자는 윤여준 의장의 “통합 논의가 언제부터인지 알아야 안 의원이 나에게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안 의원이 수도 없이 새정치를 다짐하더니 연기력이 많이 늘었다. 아카데미상을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논란 발언을 언급했다. 이어 윤 의장이 논란이 커지자 결별은 아니라며 “농담을 주고 받은 얘기 중에 한 대목이 나간거예요”라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메인뉴스의 보도량에서 선거보도 비중을 감안했을 때,



△ MBC <“안, 얼마나 거짓말을...”>(3/8)

윤여준의 발언 해프닝만 가지고 이렇게 한 꼭지로 리포트를 하는 것은 특정 정당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지나치게 과장한 보도이다. 한편 SBS는 <통합 선언 후 첫 동행...한 식구 행보>(3/8, 한정원 기자)에서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김대표와 안 의원은 함께 갈 수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윤여준 의장의 “내가 농담 잘하잖아요. 격노를 하지 않죠. 창당과정 두고 보고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라는 인터뷰 내용을 담았다.

#‘안철수 때리기’ 언제까지?

[신문] 안철수 때리기의 재구성

보수 신문들의 ‘안철수 때리기’도 여전했다. 문화일보 허민 정치부장의 10일자 칼럼 <김·안 대화의 재구성>은 말 그대로 신당 흠집내기를 위한 재구성일뿐 팩트에 입각한 칼럼이 아니었다. 허 부장은 안철수 의원이 예수를 세 번 부인한 베드로의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안 의원은 김 대표에게 ‘새 정치’를 팔았고, 김 대표는 안 의원에게 ‘낡은 정치’의 정문을 활짝 열어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안철수는 달랑 지지를 하나에 의지해 빛바랜 새정치 깃발을 든 채...”라고 비꼬았다. 있지도 않은 얘기를 픽션으로 재구성하면서까지 안철수 의원을 애써 비난하는 이 보도는 채동욱 혼외자 의혹 사건 당시 ‘아버지 전 상서’라는 칼럼을 써 여론의 뭇매를 맞은 최영해 논설위원급 칼럼의 안철수 버전이 나 마찬가지이다.